

“의대 교수의 마지막 교육…기증자 숭고한 나눔 실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기증자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조선대, 2026년 의과대학 시신기증자 합동 추모

기증자 18명과 유가족에 존경·감사의 마음 전해

조선대학교(총장 김준성) 의과대학이 20일 해오름관에서 2026학년도 시신기증자 합동 추모식을 열고, 기증자와 유가족의 송고한 뜻을 기렸다.

조선대 의과대학은 2004년부터 매년 시신기증자 합동 추모식을 개최하며, 생명의 가치와 인문적 소양을 갖춘 의료인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추모식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조선대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한 18명의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깊

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기증자 유가족을 비롯해 조선대 김준성 총장, 강희숙 부총장, 의과대학 해부학교실과 치과대학 구강부학교실 교수진, 의과대학·치과대학 학생, 직원 등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의 뜻을 함께했다.

추모식은 의과대학 최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추모묵념, 김준성 총장과

안영준 의과대학장의 추모사, 정윤영 주임교수(해부학 교실)의 ‘시신 기증과 추모식의 의미’ 강연, 유가족 및 후임 동료 교수의 ‘하늘에 쓰는 편지’ 낭독, 학생대표의 추모문 낭독, 학생 일동의 추모곡 합창, 현화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전 의과대학 해부학교실과 문정석 교수와 예방의학교실과 김양

옥 교수가 시신기증을 통해 의대 교수로서의 마지막 기록을 실천했다.

조선대 의대 교수의 시신기증은 이번

이 첫 사례로, 추모식의 의미를 더욱 깊

게 했다.

또 두 교수의 제자인 해부학교실 정윤

영 교수, 예방의학교실 유소연 교수 각각 편지를 낭독하며 스승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김준성 총장은 추모사를 통해 “시신 기증자분들의 숭고한 나눔이 없었다면 오늘의 의학교육도, 미래 의료 인재 양성도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희생과 뜻을 가슴에 새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학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안영준 학장은 “시신 기증을 통해 의학 교육에 큰 뜻을 남겨주신 기증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증자 한 분 한 분의 뜻이 의학교육의 현장에서 올곧게 이어질 수 있도록, 생명의 가치를 아는 의료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활성화 ‘온 힘’

전남문화재단·광양시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인재 발굴·양성·콘텐츠 확산·홍보 등 협력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과 광양시(시장 정인희)는 최근 광양시청에서 미디어아트 분야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계기로 문화예술 창의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광양시와 전남지역 문화예술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해 온 전남문화재단이 미디어아트 진흥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지역 문화예술 및 미디어아트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미디어아트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 연계, 미디어아트 분야 인재 발굴

및 양성, 양 기관 주관 전시·행사에 대한 홍보 및 교류 등이다.

광양시는 2024~2025년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통해 도시 전역을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미디어아트 행사를 열며, 오스트리아 린츠(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외의 교류, 국내 대표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전시, 정책 포럼 개최 등을 통해 미디어아트를 도시의 문화자산으로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디어아트를 매개로 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전남문화재단과 광양시는 최근 광양시청에서 미디어아트 분야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송원대 ‘시니어놀이지도사’ 양성 교육 성료

송원대학교는 21일 “RISE사업단이 공 하나협동조합과 공동 운영한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시니어놀이지도사)’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RISE 사업 단위과제인 ‘II-① 도심 캠퍼스 리빙랩 운영’의 하나로 추진된 대학·지역 상생형 교육 모델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시니어 세대가 놀이·여가 지원 역할을 갖춘 전문 마을활동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교육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광주 남구 방림2동 시니어센터와 송원대에서 진행됐다. 남구 지역 은퇴자 및 50세 이상 시니



송원대는 21일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시니어놀이지도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은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 수료식 모습.

어, 송원대 학생 등 약 20명이 참여했으며, 공하나협동조합은 시민 참여자 모집과 지역 현장 연계를 맡아 프로그램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참여자들은 △팝업북 구조 이해 및 제작

RISE 도심캠퍼스 리빙랩 연계
20여명 참여…마을활동가 배출

시연하는 실천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마을활동가 교육 수료증이 발급됐으며, 참여도와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참여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김호연 송원대 RISE사업단은 “이번 교육은 대학과 지역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기획·운영한 도심캠퍼스 리빙랩의 대표적인 성과 사례”라며 “시니어 세대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원대는 향후 교육·돌봄·놀이·건강 분야를 중심으로 리빙랩 기반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학·지역 협력 모델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제시판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미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물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등의 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

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 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운세

(음력 12월 4일)

48년생 때가 아니니 물러서는 것도 좋을 것
60년생 연결 고리를 과감하게 단절해라
72년생 현재 위치를 알고 주제넘지 않게 하라
94년생 일을 그르치니 너무 사투로지 말라
96년생 지인에게 등으로도 말고 기꺼리라

51년생 마음은 급하나 일은 늦고 이익도 없다
63년생 무모하게 벌이지 않으면 어려울 없다
75년생 마음에 중심이 없고 훈들름이 많은 날
87년생 남자친구 신경증 걱정을 해친다
99년생 성질을 무조건 죽이고 침으로

54년생 아랫사람이 투자 권해도 응하지 말라
66년생 즉총적인 결정은 실패할 수 있다
78년생 남파를 당하지 않으면 멀을 삼가라
90년생 공동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57년생 사람·재물이 따로니 좋은 기운 가득
69년생 의자를 관찰시키기에 충분하다
81년생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는 날
93년생 성질을 무조건 죽이고 침이라

49년생 화를 부르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61년생 예상치 않은 곳에 돈이 나간다
73년생 지금이 부동산 거래 좋은 기회
95년생 집안 중요한 일에 변화가 있을 것
97년생 금전 사정이 좋지 않게 되는 날

52년생 공허로운 재물을 탐내지 마라
64년생 집 나오면 귀하만 춥다
76년생 성정은 다난다면 기필코 이뤄진다
88년생 원인부터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55년생 해결 가능하니 근심 말라
67년생 배우자를 생각해서 너무 앓서가지 말라
79년생 재산에 미련을 가지지 말 것
91년생 친구의 광주에 금전 지출 많은 날

58년생 육심을 버리면 변창한다
70년생 공정성과 투명성만이 신뢰를 얻는다
82년생 상사와 협상실태를 토론이 절실히
94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다

50년생 앞뒤에 적이 있는 날이니 언행 조심
62년생 일서 갈 필요 없으니 서두르지 말라
74년생 부동산 전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96년생 이상의 유혹을 뿌리쳐라
98년생 이상 문제 내일로 미뤄라

53년생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노력하라
65년생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말라
77년생 우연히 친구를 만나 작은 소원 이룬다
89년생 한일이 많으니 그다지 성과 없는 날

56년생 부동산에 좋은 기회가 온다
68년생 기꺼운 사이에 약속이 깨질 수 있다
80년생 금전으로 중요한 일에 변화가 있을 것
92년생 지금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시기적절하다

59년생 오래 아들이오던 일이 발전 있을 것
71년생 투기심 있는 일에 손대지 말라
83년생 관자에 이끄는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
95년생 간단하면서도 명료함이 생산적이다

정은주 교수의 시주·증수·직령

비롯해 서구청, 서부교육지원청, 초록우산아린이재단, 서구 복지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신세계는 지역과 상생을 실천하고자 2017년부터 사랑의 S-BOX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사랑의 S-BOX는 광주신세계 대교육실에서 2026년 사랑의 S-BOX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광주신세계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활용하고 있다.

윤용성 기자



광주신세계가 21일 진행한 ‘사랑의 S-BOX 전달식’에서 관계자들과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활용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취약계층에 따뜻한 선물 전해

10여년간 사랑의 S-BOX 후원

비롯해 서구청, 서부교육지원청, 초록우산아린이재단, 서구 복지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신세계는 지역과 상생을 실천하고자 2017년부터 사랑의 S-BOX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사랑의 S-BOX는 광주신세계 대교육실에서 2026년 사랑의 S-BOX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광주신세계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활용하고 있다.